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1506~1637) 三醫司 의관 가계배경 연구 - 『선원록』을 중심으로 -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A Research on the family of Samuisa medical bureaucrat in the Middle Era of Choseon(1506-1637) through genealogical table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Genealogy of the Royal family』(璿源錄) is Genealogy of Choseon Royal family in the year 1681. This literature contains all child of concubine from Choseon Royal family. So 『Genealogy of the Royal family』is basic source for studying medical bureaucrat in the Middle Era of Choseon. The age was first period that Child of concubine is been allowed to take the civil service medical exam. All Samuisa(三醫司) medical bureaucrat from the Royal family was born in child of concubine. Refer to sundry records, medical bureaucrat were child of concubine from upper echelons of government or child of lower echelons of government. They got married to same class.

Key words : korea medicine, medical history, genealogy of the Royal family, child of concubine, medical bureaucrat, Samuisa, genealogical table

I. 서론

朝鮮時代史 구분에 대하여 역사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¹⁾ 논자는 주류인 서울대의 三分論을 따랐으며, 본고에서 朝鮮 中期라 하면 中宗反正(1507年)부터 丙子胡亂(1637年)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三醫司 醫官²⁾ 家系 연구에도 유효하다.

朝鮮 中期는 庶孽이 醫科를 통해 처음으로 出仕하는 특수성을 지닌 시기이기 때문이다. 朝鮮 前期의 醫官은 典醫監에서 시행된 醫科를 통해 出仕한 良人 嫡子 出身과 科擧가 아닌 방식으로 典醫監에 敍用된 二品 이상의 妾 子孫³⁾ 出身으로 이루어졌다. 中期는 여기에 後者의 신분 배경을 지닌 이들이 醫科를 통해 공식적으로 承원되는 변화가 있다.⁴⁾ 雜科 庶孽⁵⁾ 許通은 1497年(燕山君 3)에 同知 李拱의 庶子 李稱守가 上訴하여 처음으로 받아들여진다.⁶⁾ 그리하여 1498年 式年試 醫科에서 李稱守 등의 庶子 출신 첫 登科者가 배출

접수 ▶ 2013년 10월 23일 수정 ▶ 2013년 11월 26일 채택 ▶ 2013년 11월 20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산37 화순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서울대 학파에서는 士林을 주 기준으로 삼아 中宗反正(1506年), 丙子胡亂(1637年)을 구분 점으로 하여 전중후(관학과시대, 사림과시대, 세도정치기)로 나눈다. 고려대 학파에서는 倭亂 전후로 전후기를 나누고 개항부터 한일병탄까지 개항기로 나눈다. 서울대학과의 삼분론이 학계의 주론이다. 역사교과서는 兩亂을 전후로 이분한다.
- 2) 본고에서 醫官은 부기가 없는 한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의 三醫司에 근무한 醫官을 지칭한다. 醫藥同參醫는 顯宗 朝에 內醫院에 처음 설치되어 조선 후기의 제도이고, 內鍼醫는 術技만 있다면 賤人에서도 발탁되어 여러 신분이 혼재되어있다.
- 3) 1497년 8월 5일 朝鮮王朝實錄 기사
- 4) 『經國大典』에서 서얼금고가 명문화되기 전인 국초에 서얼이 醫科를 보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나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다.
- 5) 庶子는 良女 첩의 자이고 孽子는 賤人 첩의 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서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얼, 서자를 통용하여 단어를 사용했다. 열자는 醫科의 擧人이 될 수 없었기에 실제로 본고에서 다루는 서얼은 대개 庶子이다.
- 6) 1497년 7월 26일 조선왕조실록 기사

된다. 이후 中宗, 明宗 朝에 불허와 허용의 시기를 거치면서,⁷⁾ 兩亂 이후로는 庶孽의 雜科許通이 관례화된다. 이러한 결과 庶孽들의 醫官 出仕가 빈번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府使 許論의 庶子로 알려진 陽平君 許俊처럼 몇 인물에 대한 조사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醫官 家系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朝鮮 中期 醫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家系 族譜를 조사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庶孽의 경우 소략한 정보를 담거나 家系 자체가 빠진 사례가 많아, 기준 없는 조사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族譜 外에 朝鮮 中期 醫官에 대해 참고할만한 문헌은 『性源錄』, 『性源錄 續』, 『太醫院先生案』, 『內醫先生案』이 있다.

『性源錄』은 이선아가 기술한 바⁸⁾와같이 분명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中人家系의 형성 이후인 朝鮮後期 인물연구에 있어서 적합하지, 中期 인물연구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어 한계를 지닌다. 『性源錄 續』은 『性源錄』과 보완적인 자료이지만 같은 이유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內醫先生案』과 『太醫院先生案』 또한 壬辰倭亂 이전의 醫官에 대한 정보는 소략하며, 上系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다.⁹⁾ 따라서 이상의 문헌은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서만 가치가 있다.

본고의 대상으로 삼은 『璿源錄』은 이러한 자료들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김두현은 선도적으로 『璿源錄』을 技術職 官僚의 家系 연구에 활용했다.¹⁰⁾ 『선원록』은 1681年(肅宗 7年) 刊行된 朝鮮의 王室族譜로 王의 直系를 대상으로 親孫은 八代까지 外孫은 六代까지 기록 한다. 大君은 玄孫까지, 君은 曾孫까지 後孫이 宗親으로 인정되어 작위가 주어지고 科擧가 금지되었기에 그 이후 子孫 대에는 科擧를 볼 수

있었다. 王子 孫들이 科擧를 보는 시기가 대략 朝鮮 前期末(成宗, 燕山君)부터 시작된다.¹¹⁾ 金의 연구가 『선원록』 본문 중에 醫官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조사되었기에, 본 논고는 拙著¹²⁾와 추가 조사에 의해 醫官으로 밝혀진 이들을 『선원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朝鮮 中期 醫官에 대한 가계 배경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한다. 朝鮮 中期에 全州李氏 璿源 系에서 醫官으로 出仕한 자가 있다면 『선원록』에 모두 기록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얻는 규칙은 향후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氏族源類』와 기타 족보, 『醫科榜目』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II. 본론

1. 『璿源錄』 수록 醫官¹³⁾

『선원록』에 수록된 醫官은 총 36名이다. 이 중에서 김두현의 조사에서 빠지고 이번에 조사된 醫官은 具澹, 具思協, 具澄, 金慶華, 金允恭, 朴生榮, 辛德淸, 申得一, 尹知微, 李耆善, 李大儉, 李春揚, 鄭仁男, 鄭之問 14名이다¹⁴⁾. 아래는 36名 전체에 대한 내용이며, 내용 중 인물 옆의 수치는 『선원록』에서 인용된 “(책수-면수)”이다. 이름, 수록내용, 논자의 案 순으로 되어있다.

강윤례 姜允禮 (26-36a)

內醫院正. 庶子 沈友三의 妻父

案 : 明宗 朝 內醫. 『性源錄』에 家系가 기록되어있으나 九代祖 이상의 上系는 未詳이다.¹⁵⁾

7) 1509년 4월 1일 조선왕조실록 기사. 1543년 간행된 『大典後續錄』에서는 2품 이상 관원 첩의 증 현손에게 잡과 허용을 한다.

8) 이선아, 「의학 인물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p.67

9) 참고로 『太醫院先生案』은 『醫科榜目』에서 발견되는 오류 즉 예를 들어 잘못된 本貫 기록의 사례(首醫 李英男의 本貫을 韓山李氏가 아닌 全州李氏로 기록)가 있는데 이러한 오류들 대부분이 조선 중기 인물들에서 발견된다.

10) 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p.76~80. 이 내용은 金의 2001년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에 수록된 바 있다.

11) 『선원록』에 수록된 太祖의 후손에 제한한 설명이다. 太祖의 이복형제나 그 先祖인 度祖, 穆祖, 桓祖 등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은 그 전에 出仕하기 시작한다. 太祖의 5대손이 成宗, 6대손이 燕山君, 中宗이다. 全州李氏 분파에서 正宗과 世宗의 후손이 數적으로 많은데 世宗의 5대손이 仁宗, 明宗, 6대손이 宣祖이다.

12) 박훈평. 『조선의인지』

13) 『선원록』은 1992년에 10권으로 민중문화사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논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자료센터를 통해 원문을 검색했고, 그림 1도 해당 기관의 자료이다. 참고로 『선원록』은 51책 분이다.

14) 尹知微의 경우 내용 중에 있으나 『선원록』 조사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15) 박, op. cit. p. 20

구담 具澹 (29-23b)

本貫 綾州. 廢 綾陽尉 具文璟 庶次男
案 : 明宗 朝 醫科에 及第한 醫官.¹⁶⁾

구사협 具思協 (29-23b)

本貫 綾州. 壬子生
具涵 次男. 廢 綾陽尉 具文璟 庶孫
案 : 仁祖 朝 醫官. 生年이 새로 밝혀짐¹⁷⁾

구종 具宗 (17-52a)

本貫 綾州. 惠民署參奉. 李暉 妻父
案 : 李暉의 祖父 李幼明은 庶子

구정 具澄 (29-20b)

本貫 綾州. 癸未生
縣令 具希景 庶長男. 母 婢
案 : 宣祖 朝 醫官. 生年이 새로 밝혀짐¹⁸⁾

김경화 金慶華 (46-35a)

內醫院正. 帶原監 李光胤 妻父
案 : 肅宗 朝의 御醫. 李光胤은 庶子¹⁹⁾. 『성원록』에 家系가 기록되어있다. 慶州金氏 鷄林君派 25世. 현존 족보에는 五代祖인 金和相의 後孫이 無後로 기록되었으므로, 高祖 金寶元는 庶子로 보인다. 六代祖 金泓은 牧使를 지냈다.²⁰⁾

김구서 金龜瑞 (32-25a)

惠民署參奉. 庶子 李重徽의 妻父

김윤공 金允恭 (35-8b)

正. 庶子 李應男의 妻父
案 : 宣祖 朝의 內醫²¹⁾

남효원 南孝源 (3-115b)

本貫 宜寧. 乙酉生. 醫官
生員 南萬年 庶四男. 母 卑 海玉
妻 全州 李暉의 妾女 李萬禮
案 : 肅宗 朝에 활동한 內鍼醫. 家系가 새로 밝혀졌다. 內鍼醫 南嶸의 庶從曾孫.²²⁾

류영준 柳永俊. (5-22b)

本貫 全州. 任申生. 典醫監參奉
郡守 柳容 庶長男. 母 興安副守 綾의 妾女
妻 延安 李孝良 女. 子 大賢
案 : 大司諫 軒의 庶曾孫

박생영 朴生榮 (49-17a)

內醫院正. 庶子 朱尹 妻父
案 : 肅宗 朝 御醫. 大司憲 朴震元 庶子 內鍼醫 朴泰元의 養子.²³⁾

박홍헌 朴弘憲 (33-3a)

本貫 竹山. 內醫院正
妻 全州 彭信校尉 李義元 妾女 李得女
案 : 光海 朝의 內醫. 本貫이 새로 밝혀졌다.²⁴⁾ 婚妻로 보아 庶出로 추정된다.

신덕청 辛德淸 (46-29a)

本貫 靈山. 內醫院正. 花原守 李孝誠 妻父
案 : 仁祖 朝 內醫. 惠民主簿 辛春男 子 李孝誠은 庶孫.²⁵⁾

신득일 申得一 (37-12b)

醫官. 知事. 懷義令 李哲男 妻父
案 : 李哲男은 庶子. 仁祖 朝 首醫.²⁶⁾

16) 박, op. cit. p.34
17) 박, op. cit. p.35. 새로 밝혀졌다 함은 기존의 문헌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일 경우 병기했다.
18) 박, op. cit. p.35
19) 박, op. cit. p.42
20) 계림군과 대중회, 『경주김씨계림군과대동보』 1권. p.12.
21) 박, op. cit. p. 94
22) 박, op. cit. p. 137, 134
23) 박, op. cit. p. 161
24) 박, op. cit. p. 181
25) 박, op. cit. p. 228
26) 박, op. cit. p. 225

안경기 安景沂 (26-66b)

本貫 竹山. 戊午生. 醫官
府使 安彦銖 庶三男. 母 良女 思郎
案 : 光海 朝에 惠民署主簿를 지낸 醫官.²⁷⁾ 家系와 生年이 새로 밝혀졌다

안경순 安景淳 (26-66b)

本貫 竹山. 甲寅生. 醫官
府使 安彦銖 庶次男. 母 良女 思郎
妻 司鑰 韓守의 女

윤지미 尹知微 (32-18b)²⁸⁾

本貫 坡平. 己巳生
通政 尹覃休 庶子. 母 良女 億春
妻 典醫監正 韓承老 女. 子 無後
案 : 父와 妻父 기록에 의거 확정. 仁祖 朝의 內醫. 生年(1569年)이 새롭게 밝혀졌다.²⁹⁾

윤추 尹樞 (13-49b)

醫官. 妻 文參判 韓帖 妾女
案 : 『淸州韓氏大同族譜』에 韓帖의 사위, 本貫 坡平 기록.

이개 李概 (5-47a)

典醫監主簿, 庶子 李之芳 妻父
案 : 明宗 朝 醫科에 壯元한 醫官. 內醫 李元誠의 再從姪.
前歷 外의 官歷이 처음 알려졌다.³⁰⁾

이기선 李耆善 (21-75b)

本貫 全州. 戊申生. 監役
郡守 李厚根 次男. 母 將仕朗 宋大立 女
妻 忠州 崔暉 女. 子 一三, 台三
案 : 父名과 官歷에 의거 孝宗, 顯宗 朝에 활동한 醫藥同參으로 확정. 繕工役官을 지냈다.³¹⁾

이대검 李大儉 (6-8a)

本貫 全州. 縣監 李綏義 庶次男. 子 俊興
案 : 兄 李大溫 기록으로 光海 朝의 內鍼醫로 확정³²⁾. 家系를 새롭게 밝혔다.

이대형 李大亨 (15-55b, 39b)

本貫 全州. 丁丑生. 判官. 醫員
文參判 李拭 庶三男. 母 良女 寶香
妻 星州 李元孝 妾二女 孝淑
子 維, 紹, 綽, 經
案 : 判官이란 官歷으로 보아 醫科 登科者이거나 內鍼醫로 추정.

이락 李絡 (25-67b)

本貫 星州. 丙寅生. 知事
大司諫 李彦忠 庶次男. 母 良女
妻 礪山 觀象監正 宋惟良 女. 子 無後
案 : 孝宗 朝에 崇祿大夫에 오른 首醫. 生年이 밝혀져 『太醫院先生案』의 享年 기록으로 추산, 卒年까지 확정. 1566~1654.³³⁾

이명상 李命常 (33-30a)

本貫 全州. 乙丑生. 內醫院正
通政 李棧 次男. 副護君 李幼淹 繼子
妻 永川 內醫院正 李春揚 女. 子 震斗
案 : 顯宗, 肅宗 朝 御醫. 父와 養父가 둘 다 庶子. 孫 李嵩齡이 醫科에 及第.³⁴⁾

이순 李循 (33-30a)

本貫 星州. 壬戌生. 內醫院正
大司憲 李彦忠 庶長男. 母 良女
妻 溫陽 房壽仁 女
案 : 妻父 方壽仁으로 수정. 生年(1562年)이 『醫科榜目』, 『太醫院先生案』과 다르다(1553年). 子 李誠立은 仁祖 朝 內醫.³⁵⁾

27) 박, op. cit. p. 232
28) 그림 1 참조
29) 박, op. cit. p. 273
30) 박, op. cit. p.277, 328
31) 박, op. cit. 286
32) 박, op. cit. 288
33) 박, op. cit. 293
34) 박, op. cit. 298, 317

이영근 李榮根 (21-79a)

本貫 全州. 戊寅生. 惠民署參奉
司果 李亨光 庶子. 文知事 李希得 庶孫
처 交河 折衝 盧壽福 女. 子 耆岳

이영수 李永壽 (27-13a)

本貫 全州. 癸丑生. 內醫院正
礪山副守 李季鵬 庶子. 母 卑 存今
妻 通政 任禮福 女. 子 仁克, 義克
案 : 光海 朝 內醫.³⁶⁾

이운정 李雲禎 (8-97a)

本貫 全州. 戊申生. 典醫監參奉
李維城 庶子. 參議 李嗣仁 庶曾孫
母 良女 允畢. 子 海龍

이원 李源 (8-9b)

惠民署奉事. 庶子 李輪 妻父

이종형 李終馨 (16-54a)

本貫 全州. 庚子生. 惠民署參奉
李昱 庶次男. 母 良女
妻 密陽 嘉善 孫廷男 女. 子 文弼

이춘양 李春揚 (33-30a)

本貫 永川. 內醫院正. 李命常 妻父
案 : 仁祖, 孝宗 朝의 內醫. 父와 祖父가 算學 取才에 入
格.³⁷⁾

이혜정 李蕙汀 (16-59a)

本貫 全州. 典醫監正
李重吉 庶子. 子 進士 商尹
案 : 光海 朝 御醫³⁸⁾

정인남 鄭仁男 (31-51b)

許通. 引儀. 昌林令 李大胤 妻父
案 : 光海 朝 御醫. 內醫 鄭敬先 長男.³⁹⁾

정지문 鄭之間 (37-3a)

本貫 東萊. 戊子生. 初名 之揮
許通主簿 鄭商武 四男. 妻 朴成賢 女
案 : 仁祖 朝의 醫藥同參. 文贊成 鄭士龍 庶曾孫. 生년이 새
로 밝혀졌다.⁴⁰⁾

조청명 趙淸命 (5-3b, 13-7b)

本貫 平壤. 內醫院判事. 內醫院正
文掌令 趙光玉 庶子
案 : 明宗 朝 內醫. 本貫과 家系가 새로 밝혀졌다.⁴¹⁾

한승로 韓承老 (32-18b)

典醫監正, 尹知微 妻父
案 : 淸州韓氏 淸平尉 韓紀 庶子. 宣祖 朝 醫科를 등제한
醫官. 前歷 外의 官歷이 처음 알려졌다.⁴²⁾

36명 중 內鍼醫가 한 명이고, 醫藥同參이 두 명이며 나
머지는 三醫司 醫官이다. 수록된 三醫司 醫官 중 庶出 家系
가 아닌 경우는 없다. 따라서 朝鮮 中期에 全州李氏 璿源
系를 보면 嫡出 家系에서 醫官 職에 나아간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추정 가능하다. 『선원록』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醫科에 등제한 仁祖 朝 醫官인 李馨遠⁴³⁾도 그 上系를 보면
祖父 天成이 『선원록』에 庶子(22-17a)로 기록되어있다. 家
系未詳인 다른 全州李氏 출신 醫官들도 上系 考證이 되면
庶孽 後孫일 가능성이 높다.

通婚은 庶子家系 또는 技術職 家系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다. 雜科의 庶孽許通은 技術職 雜織을 서류의 것으로 받아
들이는 사회 풍토를 형성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수록 인물들을 보면 父에게서 醫官職을 世傳 받거나 아
들에게 世傳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親族 內의 같은 庶孽 出

35) 박, op. cit. 315, 310
36) 박, op. cit 324
37) 박, op. cit. 364
38) 박, op. cit. 377
39) 박, op. cit 438
40) 박, op. cit 444
41) 박, op. cit 466
42) 박, op. cit. p. 532
43) 박, op. cit. p. 376

身 내에서는 醫官職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醫官 敍用의 기준으로 인하여 上系에 資憲大夫 이상의 資品을 가진 이들이 많은 특징도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 醫官의 家系를 도식화시켜 보면 二品 이상의 고위직⁴⁴⁾이나 이에 버금가는 資品을 지닌 이를 曾祖父, 祖父나 父로 두면서 庶出家系이거나 庶子인 자, 또는 이들과 通婚한 자나 家系에 한하여 家系를 조사하면 醫官에 대한 정보가 나오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技術職 官僚의 後孫일 경우도 그 先代를 따라가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원록』을 통해 本貫은 밝혀졌으나 家系未詳인 朴弘憲은 庶出이거나 中人 家系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竹山朴氏族譜』를 통해 睿宗 朝에 領議政을 지낸 朴元亨의 直系에서 그를 찾을 수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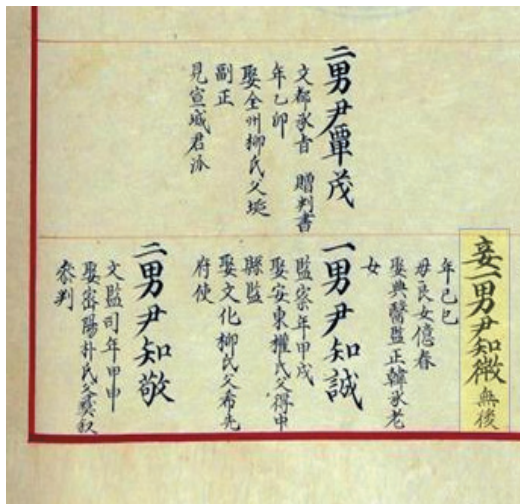


그림 1. 璿源錄 中 尹知微 部分

2. 『氏族源類』의 사례

『씨족원류』는 17世紀 중반에 趙從耘이 편찬한 統合譜로 540여개 性貫의 世系를 담고 있다. 嫡子 家門에 한하여 서술하여 수록된 醫官은 드물지만 無後로 기록된 경우 해당

醫官이 庶孽임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논고의 대상인 朝鮮 中期 인물에 한하여 분석한다.

이원성 李元誠

本貫 德水. 父 掌樂主簿 李綦 無後

案：明宗 朝에 醫科 及第한 醫官.⁴⁶⁾ 玄祖 李明晨이 知敦寧府事를 지냈다.

이지 李芝

本貫 平昌. 父 武領中樞 李季同 無後

案：中宗 朝의 內醫.⁴⁷⁾

정봉수 鄭鵬壽

本貫 光州. 庶孽.⁴⁸⁾

案：明宗 朝에 醫科에 及第한 醫官.⁴⁹⁾ 祖父는 禮賓副正, 父는 郡守를 지냈다.

『씨족원류』에서는 朝鮮 中期에 嫡子 출신이 醫官이 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上系가 파악된 醫官들이 『씨족원류』의 기록에 없는 것도 이들이 庶出이었음을 방증한다.

3. 다른 姓氏族譜에 수록된 醫官의 사례

『선원록』처럼 庶出 家系 기록이 완전한 族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1) 『礪山宋氏族譜』⁵⁰⁾

6世 宋瑞의 後孫인 正嘉公派 族譜. 朝鮮 中期에는 典醫監前卿을 지낸 宋好讓⁵¹⁾을 비롯해 8인의 후손 技術職 官僚가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庶孽기록은 없다. 府使, 駙馬, 牧使가 그들의 父이거나 祖父이며 內醫 李絡 등의 技術官과 通婚한다. 또한 技術官으로 出仕하여도 길어야

44) 이후 본고에서 文武班 고위직이라 하면 二品 이상의 資品(嘉善大夫)이나, 六曹의 判書, 觀察使, 漢城判尹 이상의 實官 官歷者가 포함된다. 老職이나 贈職에 따른 것은 제외

45) 박한조, 『죽산박씨족보』 乙권, p. 33. 朴弘憲은 朴元亨의 次男인 左贊成 朴安性의 玄孫이다. 文憲公派 22世. 族譜에는 嫡庶가 표기되어있지 않으며, 박홍헌 개인에 대한 기타 기록도 없다.

46) 박훈평, op, cit. p. 328

47) 박, op, cit. p. 356

48) 『씨족원류』를 통틀어도 庶孽이 기록된 사례는 몇 되지 않는다. 그 중 하나이다.

49) 박, op, cit. p. 424

50) 송언신, 『礪山宋氏族譜』 권2 p. 13a, 19a, 24a, 권 3 p. 20b, 30a.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51) 박, op, cit p. 223. 족보에서는 典醫監 관련 기록은 없다. 송호양 외의 7인은 雲官이다.

孫子까지만 이어지고 世傳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앞서 『선원록』에서 보았던 全州李氏 璿源系 庶孽들의 醫官 진출 양상과 유사하다. 이들의 出仕시기가 中宗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庶子와 그들의 後孫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선원록』에서 庶孽을 기술하는 방식도 그러했지만 嫡子와 嫡女 이후에 庶子와 庶女를 기록하는 방식을 이 族譜에서도 보여준다. 따로 庶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⁵²⁾ 사위들 이름 다음에 다시 男孫이 나온다면 이들은 庶孽이 분명하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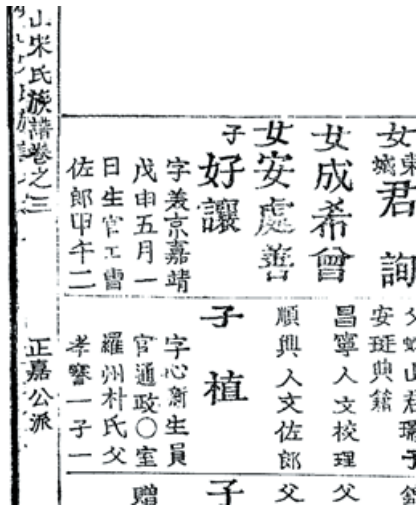


그림 2. 礪山宋氏族譜 中 宋好讓 宋植 部分

13世 송호양 宋好讓
典醫監前啣. 府使 宋自剛 庶子

14世 송식 宋植
雲官⁵⁴⁾. 通政. 醫官 宋好讓 長男

14世 송업 宋業
觀象監直長. 縣令 宋末環 庶長子
牧使 宋壽 庶孫.

14世 송륜 宋崙
觀象監正. 縣令 宋末環 庶次男

15世 송인룡 宋仁龍
觀象監正. 雲官 宋崙 長男

15世 송의룡 宋義龍
觀象監主簿. 雲官 宋崙 次男

15世 송유량 宋惟良
觀象監奉事. 礪城尉 宋仁 庶子
內醫 李絡 妻父

16世 송욱 宋昱
雲正. 雲官 宋仁龍 姪. 內醫 趙汝櫓 外孫

2) 『延安李氏族譜』⁵⁵⁾

平安監營에서 1694年(肅宗 20)에 刊行한 木版本 族譜로 李襲洪의 後孫인 詹事公派 族譜. 朝鮮 中期에 參議를 지낸 10世 李仁文의 후손 중에 技術官이 많다. 이들 중 醫官은 다섯 명이 발견된다.

11世 이하손 李夏孫
內醫院正. 參議 李仁文 庶次男⁵⁶⁾

12世 이봉상 李鳳祥
醫官. 內醫 李夏孫 長男⁵⁷⁾

12世 이란상 李鸞祥
醫官. 內醫 李夏孫 次男⁵⁸⁾

13세 이위 李偉
典醫直長. 李復升 長男. 內醫 李夏孫 從孫
李復升은 李夏孫의 嫡兄弟인 李坤의 庶子

13세 이진 李侔
典醫主簿. 李復升 次男. 『眉巖日記』를 통하여 1573년 式年

52) 이 족보의 舊譜에서는 嫡庶를 구별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후손들의 필요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53) 安東權氏 성화보처럼 初期 族譜에서는 嫡出의 남녀가 나이순으로 병기되지만 이러한 경우 庶出은 기록되지 않았다.
54) 雲科榜目 참조. 宋植의 榜目에 宋好讓 官歷이 기록되어있다.
5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929.1 연안이거 1~3.
56) 박, op, cit p. 369.
57) 박, op, cit p. 305.
58) 박, op, cit p. 293.

試 醫科에 壯元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 『醫科榜目』에는 미 기록되어있다.⁵⁹⁾

이들 또한 앞서 고찰한 이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二品 이상의 高位職의 庶出家系에서 出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順興安氏族譜』

1824年 安最良이 편한 15권 16책 木版本 族譜. 韓國學中央研究院 所藏으로, 判書를 지낸 9世 安從約 後孫 族譜이다.

直提學을 지낸 11世 安之歸 直系 後孫으로 醫官 두 명이 기록⁶⁰⁾되었는데, 둘 다 官歷과 後孫 없이, 庶子 기록만 있다.

14世 안옥 安玉

軍資正 安處誠 庶子. 安之歸 曾孫
案 : 禮曹藥房(醫員)⁶¹⁾

15世 안광익 安光翼

縣監 安珽 庶次男. 安之歸 玄孫
案 : 內醫院正⁶²⁾

4) 『靑松沈氏世譜』

沈能定이 1843년에 편한 木版本 族譜. 韓國學中央研究院 所藏본이다. 技術官은 觀察使를 지낸 7世 沈璿의 直系에서 세 명, 政丞을 지낸 9世 沈濬의 直系에서 한 명 발견되는데 모두 庶出 家系이다.⁶³⁾

9世 심륜 沈淪

典醫監正. 郡守 沈安禮 庶子. 沈璿 庶孫

10世 심광년 沈光年

典醫監副正. 醫官 沈淪 次男

11世 심현조 沈絃彫

沈湍 四男. 領中樞 沈濬 庶孫
案 : 中宗 20年 式年試 醫科. 惠民署主簿⁶⁴⁾

11世 심은 沈銀

觀象監參奉. 知樞 沈彥光 庶子. 沈璿 庶玄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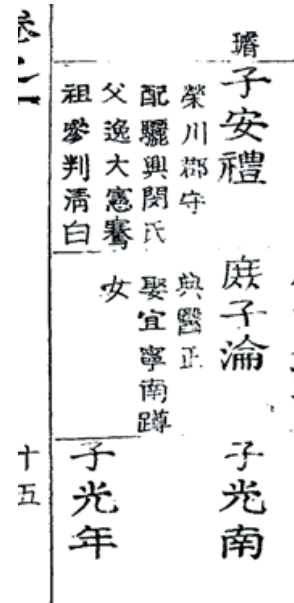


그림 3. 靑松沈氏世譜 中 沈淪 沈光年 部分

4. 『醫科榜目』의 수록 인물 家系 분석

燕山 朝부터 光海 朝에 이르는 시기에 登科한 醫官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이들이 주로 朝鮮 中期에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上系가 밝혀진 경우에 한해 분석을 하였고, 上系 未詳인 경우에도 고증이 되는 경우는 따로 부기했다. 『성원록』과 『醫科榜目』등을 통해 祖父 정도까지 上系가 파악된 이는 다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上系가 파악되어야 庶出家系인지 구분이 이루어지기에 분석에서는 제외했다⁶⁵⁾.

59) 박, op, cit p. 344.

60) 安最良, 『順興安氏族譜』, 권 2, p. 12a, 13a.

61) 박, op, cit. p. 239. 『眉巖日記』에 기록

62) 박, op, cit. p. 232. 『實錄』, 『태의원선생안』 內醫 기록

63) 沈能定. 『靑松沈氏世譜』, 권 1. p. 23b, 25a, 35a.

64) 박, op, cit p. 231.

65) 祖父까지만 上系가 파악된 이들은 父나 祖父가 대부분 기술직 관료여서, 上系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면 庶出家系일 가능성이 높다.

1) 燕山 朝 榜目

현존 수록자는 1회 9명이다. 이들 중 上系가 파악되면서 앞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5명, 金堧(判書 金良璈 庶子)⁶⁶, 申承孫(韓明滄 庶婿)⁶⁷, 李稱守(同知 李拱 庶子), 李志孫(參判 李永垠 庶子)⁶⁸, 李慶(參議 李啓基 庶子)⁶⁹이다.

상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黃世亨(實錄에 孽子 기록)⁷⁰ 또한 이러한 家系 出身으로 추정된다.

2) 中宗 朝 榜目

현존 수록자는 6회 54명이다. 이들 중 上系가 파악된 이는 15명이고, 앞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14명으로, 李三吉(判書 李芮 庶子)⁷¹, 申希浩(正 申渙 庶子)⁷², 朴承明(判書 朴槿 庶子)⁷³, 金繼胤(判書 金謙光 庶孫)⁷⁴, 沈絃澗(領議政 沈溫 庶曾孫)⁷⁵, 李芝(領中樞 李季同 庶子)⁷⁶, 李鄭臣(府尹 李堪 庶子)⁷⁷, 柳滄(右議政 柳亮 五代孫. 掌令 柳廷秀 庶子)⁷⁸, 鄭鶴年(正 鄭宗輔 庶子. 左議政 鄭佶 庶孫)⁷⁹, 李藁(醫官 李亨守 獨子. 同知 李拱 庶孫)⁸⁰, 慶雱(參判 慶世昌 庶子)⁸¹, 崔沈(僉知 崔玉浩 庶子. 監司 崔善

敏 庶孫)⁸², 方忠孝(參判 方有寧 庶長男)⁸³, 延壽冊(醫官 延恭謹 獨子. 府院君 延嗣宗 玄孫)⁸⁴이다.

上系는 분명하지 않으나 洪義利(知事 洪繼庸 子)⁸⁵ 또한 이러한 家系 出身으로 추정된다.

中宗 35年 醫科에 登科한 李承文(金山李氏)은 上系에 고위직이 보이지 않으며 父 李世卿이 內醫院正을 지내는 등 技術職 官僚로만 出仕한 家系이다.⁸⁶

3) 明宗 朝 榜目

현존 수록자는 2회 18명이다. 이들 중 上系가 파악된 이는 10명이고, 앞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8명으로, 李元誠(知敦寧府事 李明晨 玄孫)⁸⁷, 金愼恭(牧使 金瑁 庶子)⁸⁸, 李概(郡守 李纘祖 庶子), 鄭鵬壽(郡守 鄭大德 庶子), 柳津(參贊 柳聘年 庶子)⁸⁹, 具澹(綾陽尉 具文景 庶子), 慶時行(府使 慶渾 庶子)⁹⁰, 沈光年(醫官 沈淪 子. 郡守 沈安禮 庶孫)⁹¹이다.

明宗 4년 醫科에 登科한 楊禮壽(淸州楊氏 西平君派)는 西班牙家系 出身으로⁹², 明宗 19년에 登科한 李嗣成(父 內醫院正 李世卿)은 技術職家系 出身⁹³으로 앞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6) 박, op, cit p. 48. 『씨족원류』에 金良璈 아들로 미기록

67) 박, op, cit p. 226. 『실록』에 庶子 기록

68) 박, op, cit p. 356. 족보에 미 수록

69) 박, op, cit p. 278. 족보에 미 수록

70) 박, op, cit p. 572. 본관은 長水. 父가 事通이다. 현존 족보를 보면 黃喜의 손자 항렬이 “事” 들림자이나, 事通이란 인물은 미 수록.

71) 박, op, cit p. 307. 府院君 韓明滄 婿로 족보 기재 되어있으나 현존 『청주한씨족보』에는 미 수록. 韓明滄碑銘을 보면 韓明滄의 嫡出이 1남4녀 庶出이 7남6녀로 기록. 현존족보에는 庶女가 세 명만 기록되어있다. 李三吉의 前歷이 典醫監副奉事. 庶婿이므로, 庶子로 추정된다.

72) 박, op, cit p. 228. 실록에 庶子 기록

73) 박, op, cit p. 163. 父 墓誌銘 庶子 기록

74) 박, op, cit p. 44. 족보에 父 克愼까지만 기록

75) 박, op, cit p. 231. 父 湍은 領中樞 潛 庶次男으로, 족보에 기록

76) 박, op, cit p. 356. 『씨족원류』에 父無後기록

77) 박, op, cit p. 346. 『實錄』에 庶子 기록

78) 박, op, cit p. 141. 족보에 庶子 기록

79) 박, op, cit p. 448. 족보에 鄭宗輔까지만 기록 庶子 추정

80) 박, op, cit p. 277. 李亨守. 실록에 庶子 기록

81) 박, op, cit p. 23. 『實錄』에 庶子 기록

82) 박, op, cit p. 508. 崔玉浩 嫡子는 牧使 崔沈.

83) 박, op, cit p. 190. 方有寧 墓碣 記錄

84) 박, op, cit p. 247. 延恭謹은 縣監 延井潔의 아들이다. 현존족보에는 末子인 五男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족보 순서나 官歷으로 볼 때 庶子로 추정된다.

85) 洪繼庸은 府使, 知樞를 지냈는데 上系는 알 수 없다. 西班 출신에서 軍功으로 立身한 이었다.

86) 박, op, cit p. 317.

87) 『씨족원류』 父 無後 기록

88) 박, op, cit p. 84. 족보 庶子 기록

89) 박, op, cit p. 145. 족보 미 수록

90) 박, op, cit p. 24. 족보 미 수록

91) 박, op, cit p. 230. 족보 父 庶子 기록

92) 박, op, cit p. 244.

4) 宣祖 朝 榜目

현존 수록자는 12회 81명이다. 이들 중 上系가 파악된 이는 27명이고, 앞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23명으로, 韓承老(淸平尉 韓紀 庶子), 南承嗣(領議政 南袞 庶子)⁹⁴, 鄭禮男(參贊 鄭熙啓 7代孫. 內醫 鄭敬先 三男)⁹⁵, 朴平(參贊 朴守良 庶子)⁹⁶, 崔梯贊(醫官 崔室 子. 承旨 崔重演 孫)⁹⁷, 卞景迨(郡守 卞勳男 子)⁹⁸, 李坤(醫官 李億年 子. 郡守 李仁壽 孫)⁹⁹, 李永壽(礪山副守 李季鵬 庶子), 李絡, 李循(大司憲 李彥忠 庶子), 李蕙汀(通政 李重吉 庶子), 崔順立(領議政 崔興源 庶子)¹⁰⁰, 李希憲(大司憲 李戡 庶長男)¹⁰¹, 韓芷(淸平尉 韓紀 庶孫),¹⁰² 李英男(首醫 李公沂 子. 贊成 李坡 庶玄孫)¹⁰³, 安頊(內醫 安光翼 子. 大司成 安之歸 5代孫)¹⁰⁴, 朴弘憲(贊成 朴安性 庶玄孫),¹⁰⁵ 趙有澈(右議政 趙挺 庶子)¹⁰⁶, 金嗣男(譯官 金龜齡 子. 府使 金敞 6代孫),¹⁰⁷ 尹知微(左議政 尹漑 庶曾孫), 辛春男(醫官 辛希壽 子. 監司 辛安柱 5代孫)¹⁰⁸, 柳鐵緒(左議政 柳曼殊 7代孫)¹⁰⁹, 韓茂

(醫官 韓承老 子. 淸平尉 韓紀 庶孫)¹¹⁰이다.

宣祖 9년에 登科한 李怡(金山李氏. 祖父 內醫院正 李世卿)¹¹¹와 宣祖 36년에 登科한 康順儉(昇平康氏. 內醫 康孝義 子)¹¹²은 西班 家系出身이며, 宣祖 39년에 登科한 安孝男¹¹³은 西班 家系 出身, 同科에 登科한 奇益俊은 한미한 가문 출신¹¹⁴으로, 앞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光海 朝 榜目

현존 수록자는 8회 42명이다. 이들 중 上系가 파악된 이는 14명이고, 앞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10명으로, 辛德淸(醫官 辛春男 子. 監司 辛安柱 6代孫)¹¹⁵, 權得仁(正 權壽蕃 孫),¹¹⁶ 辛遇聘(監司 辛安柱 6代孫),¹¹⁷ 李順元(府使 李世蕃 庶曾孫)¹¹⁸, 李誠立(內醫 李循 子. 大司憲 李彥忠 庶孫)¹¹⁹, 金薰誠(內醫 金嗣男 子. 府使 金敞 7代孫),¹²⁰ 李有憲(大司憲 李戡 庶次男. 內醫 李希憲 弟)¹²¹, 崔得龍(參判 崔應賢 7代孫)¹²², 尹穡(坡山府院君 庶玄孫)¹²³, 姜

93) 박, op, cit p. 306.

94) 박, op, cit p. 134. 『願庵集』에 庶子 기록

95) 박, op, cit p. 429. 『선원록』許通 기록. 鄭敬先 또한 實錄에 庶孽로 기록

96) 박, op, cit p. 179. 족보 庶子 기록

97) 박, op, cit p. 503. 족보 미 수록

98) 박, op, cit p. 203. 족보 미 수록

99) 박, op, cit p. 280. 李億年의 사위 崔嗣宗은 算學 入格. 官歷으로 볼 때 庶子로 추정

100) 박, op, cit p. 494. 崔興源은 參判 權應昌의 女와 혼인하였는데 後妻 기록은 없다. 權應昌의 父 權希孟 墓碣이 현존하는데 1563년에 쓰여진 글이다. 이 글에 崔興源의 자녀를 一男 二女라 하고 있고, 여기서 一男은 參判 崔山立을 말하며, 1558년 生인 최순립이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庶子임을 알 수 있다.

101) 박, op, cit p. 383. 현행 족보에는 後妻의 자식처럼 되어있으나 醫官 張得海의 女와 혼인하는 점, 동생 李有憲 또한 光海 朝 醫科에 及第하는 것으로 보아 庶子로 추정된다.

102) 박, op, cit p. 537. 父 韓仁老는 庶子

103) 박, op, cit p. 324. 祖父가 庶子이다. 씨족원류를 보면 증조부 德潤은 2男 1女를 두었으며 여기에 祖父는 미 수록 되어 庶子로 추정된다.

104) 박, op, cit p. 239. 父가 庶子

105) 박, op, cit p. 181. 『선원록』 참조

106) 박, op, cit p. 462. 현존 『의과방목』으로는 本貫과 선계미상이나 亨難元從功臣錄券 등을 통해 家系가 조사된다.

107) 박, op, cit p. 66. 祖父가 庶子. 족보에 祖父부터 미 수록.

108) 박, op, cit p. 229. 父가 庶子

109) 박, op, cit p. 146. 현존 榜目으로는 先系미상이나 족보를 통해 보충

110) 박, op, cit p. 529. 父가 庶子

111) 박, op, cit p. 336.

112) 박, op, cit p. 15.

113) 박, op, cit p. 243.

114) 祖父가 進士, 曾祖父가 生員이었으나 官歷은 없으며, 朝鮮朝에 上系가 出仕한 기록이 없다. 형제가 譯科로 出仕한다. 박, op, cit p. 40.

115) 박, op, cit p. 228.

116) 박, op, cit p. 35. 妻父 李泉龍의 通婚 관계를 고려할 때, 權 또한 庶子로 추정

117) 박, op, cit p. 229.

118) 박, op, cit p. 316. 父가 庶子

119) 박, op, cit p. 310.

120) 박, op, cit p. 84.

121) 현존 榜目에는 本貫과 家系 未詳이나 羽溪李氏족보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122) 박, op, cit p. 485. 玄祖가 庶子

123) 박, op, cit p. 273.

大祺(醫官 姜壽永子. 郡守 姜孫 曾孫)¹²⁴⁾이다.

光海 13年 醫科에 登科한 南應琛은 律官 南彦國의 子이며, 祖父가 引儀 南錫明의 庶子이다. 上系를 보면 六代祖의 官歷이 縣令 정도인 한미한 집안 출신이다.¹²⁵⁾ 同科에 登科한 李義亨(星州李氏 廣平君派)은 고려말 權臣 李仁任의 八代孫으로 朝鮮朝에는 한미해진 집안출신이다. 李義亨의 父 李泉龍은 사위인 醫官 權得仁, 醫官 尹穢 등의 通婚관계로 볼 때 技術職 官僚로 추정되며 老職으로 嘉善大夫를 받았다.¹²⁶⁾ 光海 10年 醫科에 登科한 韓玟은 父가 譯官 韓忠男이며, 上系의 官歷이 한미한 집안이다.¹²⁷⁾ 1621年 醫科에 登科한 韓璜은 韓玟의 동생이다.¹²⁸⁾

6) 榜目에 대한 고찰

『醫科榜目』을 통해 앞서 『선원록』을 통해 유형화시켰던 방법론에 보완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醫科를 통해 出仕하는 이들은 文武班 高位職 庶出家계 뿐 아니라 한미한 씨족의 嫡出 出身 또한 技術職 家系를 형성하거나 一二代에 걸쳐 일시적으로 出仕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文武班 高位職 嫡出家系에서 醫科에 登科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成宗 朝 內醫를 지낸 李引錫 이후 6명의 醫官을 내는 陽城李氏 一侍中派와, 中宗 朝 內醫를 지낸 李世卿 이후 4명의 醫官을 배출한 金山李氏로 대표되는 가문들¹²⁹⁾에서 조선 중기에도 醫官 家系가 형성되어 가는 맥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醫科의 庶孽許通 이후 雜科 합격자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며, 朝鮮 後期에 발견되는 일부 가문의 醫官職 지배양상과 견주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中宗 朝에 형성되었던 醫官 家系는 宣祖, 光海君을 거치면서 단절되고 寧越辛氏 草堂公派¹³⁰⁾, 昇平康氏¹³¹⁾, 三陟金氏 府使公派¹³²⁾, 安東權氏 副正公派¹³³⁾, 星州李氏 廣平君派¹³⁴⁾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가문들이 醫官職에 出仕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보았던 礪山宋氏 正嘉公派나 延安李氏 太子詹事公派 출신의 技術職 官僚도 이 기간에 단절 되었으며 陽城李氏 一侍中派와 金山李氏 내 醫官 계열도 약화된다. 여기서 兩亂과 反正이라는 정치적 급변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¹³⁵⁾

이 시기 『醫科榜目』에 수록된 204명의 登科者 중 文武班 高位職 庶出家系 출신으로 확인된 이들만 63명으로 전체 登科者의 30.88%에 달한다. 이 수치는 上系가 조사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朝鮮 中期 한미한 가문의 족보가 현존하는 경우가 드물며, 따라서 上系 조사가 주요한 문벌 가문들 위주로 가능하고 이에 따른 통계적인 오류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庶孽의 醫科 登科者 급증은 분명 朝鮮 中期 醫官 家系만의 특색이며 다양한 家門의 醫官職 진출이 이루어지는 토대였다.

5. 『太醫院先生案』인물 분석

內醫院에 근무했던 內醫에 관한 先生案 으로 『醫科榜目』의 기록과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榜目』에 수록되지 않은 燕山君 이전의 醫官과 醫科에 登科하지 않고 敍用된 醫官, 醫科에 登科했으나 현존 『榜目』에는 수록되지 않은 醫官에 관한 정보를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榜目』에 수록되지 않은 醫官의 경우 官職 등만 기재 되어있어 다른 자료로서 上系를 조사하였다.

124) 박, op, cit p. 19.

125) 박, op, cit p. 135.

126) 박, op, cit p. 336.

127) 박, op, cit p. 531.

128) 박, op, cit p. 539.

129) 박, op, cit p. 384.

130) 宣祖 朝에 典醫監判官을 지낸 辛希壽의 영일신씨 초당공과는 肅宗 朝 內醫를 지낸 曾孫 辛器頌까지 7명의 醫官을 낸다. 박, op, cit p. 230.

131) 明宗 朝에 登科해 光海 朝에 內醫를 지낸 康孝義의 승평강씨는 高宗 朝까지 30명의 醫官을 낸다. 박, op, cit p. 18.

132) 宣祖 朝에 登科해 光海 朝에 內醫를 지낸 金嗣男의 삼척김씨 부사공과는 高宗 朝까지 13명의 醫官을 낸다. 박, op, cit p. 131.

133) 光海 朝에 登科한 權得仁 이후로 안동권씨 부정공과는 英祖 朝에 이르기까지 12명의 醫官을 낸다. 박, op, cit p. 40.

134) 光海 朝에 登科한 李義亨의 성주이씨 광평군과는 고종 조에 이르기까지 12명의 醫官을 배출한다. 박, op, cit p. 384.

135) 논자가 조사한 조선시대 醫官 4330명(生徒 포함)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시대 주요 醫官가계의 醫官 첫 出仕 시기가 朝鮮 後期 初(17世紀 중 후반)에 집중되어있다. 다음은 直系(叔姪 間 世傳 포함)로 이어진 경우의 첫 醫官 인물이며, 가계 앞의 순위는 조선시대 내 醫官 배출 순위이다. 1. 전주이씨 완창대군과. 영성군계는 肅宗 28년 醫科에 登科한 李必夏, 운성군계는 肅宗 10年 醫科에 登科한 李壽延. 2. 경주최씨 참판공과. 肅宗 16年 醫科에 등과한 崔惟亮 3. 천녕현씨. 仁祖 24年 醫科에 登科한 玄珪. 4. 경주정씨 문헌공과. 顯宗 13年에 登科한 鄭麟祥. 5. 밀양변씨 중과. 孝宗 顯宗朝의 醫官 卞爾瓊. 6. 온양방씨 판서공과. 仁祖 朝의 內醫 方承男. 7. 태안이씨 부호군堅계. 顯宗 朝의 內醫 李尙蕃. 8. 온양정씨 고성공과. 顯宗 元年 醫科에 등과한 鄭來慶. 9. 김해김씨 守良계. 仁祖 5년 醫科에 등과한 金時鑑. 10. 홍천피씨. 英祖 朝에 內鍼醫로 출사한 皮世麟. 10. 직산최씨 壽長系. 肅宗 朝 醫官 崔泰觀. 박훈평, 「19세기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p.7.

『太醫院先生案』에서 丙子胡亂 以前에 內醫로 出仕한 이는 柳德澤¹³⁶⁾ 以前인데, 이들 중 成宗 朝에 卒한 權纘¹³⁷⁾을 제외한 이들이 朝鮮 中期 醫官이다. 이들 중 앞서 『醫科榜目』과 族譜 분석 등을 통해 조사되었던 이들을 제외하고 上系가 조사된 이는 아래와 같다¹³⁸⁾.

안찬 安瓚¹³⁹⁾

順興人. 『葵史』에 執義 安謹厚의 庶子로 기록되었다. 漢城 判尹 安瑗의 庶孫.

강이의 姜二儀¹⁴⁰⁾

『姓源錄』에 晉州人. 姜啓周 子. 內醫 姜允禮 從兄弟로 기록. 姜允禮가 庶出과 通婚하는 것으로 보아 庶出로 추정된다.

이세경 李世卿¹⁴¹⁾

『姓源錄』에 李玉芝 繼子. 李祀門 子로 기록. 金山人. 한미한 집안 출신.

이윤량 李潤樑¹⁴²⁾

父의 碑銘에 의거 參判 李賢輔의 庶長男임을 알 수 있다. 『陶山及門諸賢錄』과 『錦溪集』에 근거하여 1552年(明宗7) 式年 試 醫科에 登科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해의 『醫科榜目』은 전하지 않는다.

이공기 李公沂¹⁴³⁾

韓山人. 李冷 獨子. 內贍直長 李德潤 庶孫. 『씨족원류』에 李德潤의 子에 李冷이 빠져있다. 이공기가 扈聖勳으로 韓溪君에 封君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李冷이 庶子였다는 확증이 된다.

허준 許浚¹⁴⁴⁾

陽川人. 府使 許論 庶長男.

정경선 鄭敬先¹⁴⁵⁾

文掌令 鄭從濩 庶子. 參贊 鄭熙啓 六代孫. 族譜에 子로 기록되었는데, 『實錄』에 庶孽이라는 기록이 있고, 『선원록』에 鄭從濩에 대해 無後 기록이 있다.¹⁴⁶⁾

남응명 南應命¹⁴⁷⁾

宜寧人. 族譜에 大司憲 南世健 庶三男 기록

류민 柳珉¹⁴⁸⁾

文化人. 族譜에 柳彭祖 庶子 記錄. 郡守 柳哲孫 庶曾孫

조신 曹伸¹⁴⁹⁾

昌寧人. 縣監 曹繼門 孽子. 『太醫院先生案』의 本貫 기록은 오류이다.

양지수 楊智壽¹⁵⁰⁾

淸州人. 首醫 楊禮壽 弟. 한미한 西班牙家系 出身.

이연록 李延祿¹⁵¹⁾

『國朝相勳錄』에 大司成 李克增 庶玄孫이라는 기록이 있다. 扈聖勳으로 廣漢君에 封君되었다.

남용 南瑢¹⁵²⁾

宜寧人. 族譜에 司譯判官 南應壽 長男 기록. 大司憲 南世健 庶孫. 南應壽는 南世健의 庶次男이다.

136) 이우성 편. 『태의원선생안』. p.465 柳德澤 다음에 기록된 朱以男 설명에 “以後丙子後”이 있다.

137) 박, op, cit p. 39.

138) 『內醫先生案』은 『太醫院先生案』보다 수록 인물이 더 적으며 내용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 안상우, 『內醫先生案』, 영인 p.5~18.

139) 박, op, cit p. 241. 이, op, cit p.454.

140) 박, op, cit p. 20. 이, op, cit p.454.

141) 박, op, cit p. 311. 이, op, cit p.455.

142) 박, op, cit p. 333. 이, op, cit p.455.

143) 박, op, cit p. 281. 이, op, cit p.457.

144) 박, op, cit p. 545. 이, op, cit p.457.

145) 박, op, cit p. 414. 이, op, cit p.458.

146) 『선원록』 23권, p. 2a. 鄭從濩의 妻父가 德林守 李諱.

147) 박, op, cit p. 135. 이, op, cit p.458.

148) 박, op, cit p. 142. 이, op, cit p.458.

149) 박, op, cit p. 455. 이, op, cit p.458.

150) 박, op, cit p. 244. 이, op, cit p.458.

151) 박, op, cit p. 323. 이, op, cit p.459.

152) 박, op, cit p. 134. 이, op, cit p.460.

강효의 康孝義¹⁵³⁾

昇平人. 『太醫院先生案』에 1564年(明宗19) 式年試 醫科 登科 記錄이 있는데 현존 榜目에는 미 기록되어있다. 武科 康世弘 次男. 西班牙家系 出身.

방승남 方承男¹⁵⁴⁾

溫陽人. 司直 方賢 長男. 한미한 西班牙家系 出身

- 3. 東班職으로 出仕한 先系가 없는 한미한 家系에서는 庶出이 아닌 嫡出이 醫官으로 출사한다.
- 4. 技術職 家系를 형성한 특정 몇 家門을 제외하고는 醫官職 世傳이 이루어지지 않고, 一二代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壬辰倭亂 前後의 주요 醫官 家系들의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¹⁵⁵⁾

이상의 내용으로 族譜를 통한 朝鮮 中期의 醫官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 도출된다. 즉 嫡庶 자손이 모두 기록된 근대 이전의 族譜를 우선 찾아야 하며, 그 族譜가 文科 及 第者를 많이 배출한 가문의 것이라면 二品 이상의 官僚 直系에서 庶出을 조사하고 한미한 가문이라면 嫡出을 조사하면 된다. 여기서 庶出이더라도 그 후손 중에 영달한 자가 나오는 경우 庶子 관련 기록이 수정되는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¹⁵⁶⁾. 이러한 경우 通婚 관계나 문집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朝鮮 中期 醫官이 상당수 庶出 家系였다는 결론은 기존의 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선원록』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분석을 하여 추정이 아닌 명확한 결론을 얻은 점, 朝鮮 中期와 後期 醫官 家系의 차이를 구분하게 된 의의는 있다.

III. 결론

논자는 본고를 통하여 朝鮮 中期 三醫司 醫官 家系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嫡庶 자손을 모두 수록한 朝鮮의 王室族譜 『璿源錄』은 이러한 점에서 도식화된 유형을 끌어 내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그 결과 논자는 『선원록』에서 醫官 家系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선원록』은 王室의 後孫만이 기록된 族譜이기에 여기서 얻은 결론을 전체 醫官 家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른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姓氏族譜와 『씨족원류』, 『醫科榜目』, 『太醫院先生案』을 통하여 全州李氏가 아닌 姓貫의 醫官 家系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선원록』에서 찾았던 규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二品 以上の 高位職이나 이에 버금가는 資品을 지닌 이를 直系 조상으로 두는 경우는 嫡出이 아닌 庶出 家系 出身이 醫官으로 出仕한다. 이 경우 父子間 世傳만큼이나 같은 庶子인 형제나 숙질간의 世傳 양상도 나타난다.
- 2. 醫官은 1항에 해당하는 家系의 인물이나 技術職 官僚 家系와 通婚한다.

참고문헌

- 1. 계림군과 대중회. 『慶州金氏鷄林君派大同譜』. 대동보편찬 위원회. 1991.
- 2. 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서울 : 경인

153) 박, op, cit p. 18. 이, op, cit p.462.

154) 박, op, cit p. 185. 이, op, cit p.463.

155) 의미 있는 변화라 함은 본고의 4-6 榜目に 대한 고찰과 각주 135에서 살펴본 바 있다. 첫째 陽城李氏 一侍中派를 비롯한 家系들이 壬亂을 거치면서 약화되고, 昇平康氏 등의 家系로 주요 醫官 家系가 바뀐다. 둘째 壬亂 이후에 世傳 등으로 나타나는 醫官職에 대한 일부 家系의 독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남희는 雜科榜目 분석을 통해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雜科 진출의 世傳性을 보여주었다. 醫科의 경우 전체 登科者를 대상으로 할 때, 父親의 醫官職 비율은 17세기에 28.9%였는데 18세기에는 38.7%, 19세기에는 33.9%이며, 祖父의 醫官職 비율은 17세기에 6.6%, 18세기에 27.1%, 19세기에 28%이고, 曾祖父의 醫官職 비율은 17세기에 1%, 18세기에 16%, 19세기에 24.6%였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p. 317~320. 김두현은 씨족을 세분하여 直系 후손 중심의 家系별 분석을 하였는데, 雜科와 謄學 入格(登科)者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38명 이상 入格者를 낸 家系는 전체 入格者를 대상으로 하는 확률로 16세기 전반에 0.4%, 중반에 6%, 후반에 8.1%, 17세기 전반에 28.2%, 후반에 43%, 18세기 전반에 53.6%, 후반에 60.1%, 19세기 전반에 66.7%, 후반에 65.7%였다. 김두현,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신분 연구』. p. 192. 비록 榜目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독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고를 통한 논자의 16세기 醫官 家계 분석은 16세기 醫科榜目이 완전하지 않은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면이 있다.

156) 이러한 예로 陽城李氏 醫官 李三吉의 예를 들 수 있다. 庶子여서 족보에서 그 후손이 제외되었다가, 直系 후손이 壬辰倭亂 때 軍功을 세워 족보에 편입된다. 각주 69 참조.

- 문화사. 2013.
3. 류처후. 『文化柳氏族譜』, 1688.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4. 박한조. 『竹山朴氏族譜』, 1960. 인제대학교 소장본.
 5. 朴薰平. 『朝鮮醫人誌』. 한국학술정보. 2012.
 6. 송언신. 『礪山宋氏族譜』, 연대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7. 沈能定. 『靑松沈氏世譜』. 1843.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8. 안상우. 허준의학전서 7 『內醫先生案』. 2000. 한국한의학연구원.
 9. 안최양. 『順興安氏族譜』. 1824.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10. 이우성. 『滄疹集·太醫院先生案』.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7.
 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한국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서울 : 신서원. 1999.
 12. 조중운. 『氏族源類』. 서울 : 보경문화사. 1992.
 13. 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淸州韓氏大同族譜. 1993.
 14. 평안감영. 『延安李氏族譜』. 1694. 계명대학교 소장본.
 15. 朴薰平. 「19世紀 後半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2013 ; 26(1) : 1-8.
 16. 이선아. 「의학 인물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한국 의사학회지. 2007 ; 20(2) : 65-69.
 1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자료센터(<http://royal.kostma.net>)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